



중국

쇼트클립, 여전히 저작권 침해 만연

북경사무소

■ 현황

- 1인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최근 쇼트클립(Short Clip)이 큰 흥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쇼트클립 영상의 제작 및 전송과정에서 여전히 저작권 침해가 만연하고 있음. 특히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무단 전재와 편집 등의 문제가 심각한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임
- 2017년은 중국 쇼트클립(短視頻, 간편하게 제작한 짧은 영상) 성장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쇼트클립이 폭발적 인기를 끌었고, 백 여 개가 넘는 기업이 잇따라 생겨나며 시장은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그중 콰이쇼우(快手), 더우인(抖音)이 선점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휘산(火山), 시과(西瓜)가 틈새시장을 공략하며 선두그룹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지난 7월 7일 상하이시 판권국과 화동정법대학이 공동으로 '쇼트클립 저작권 및 경쟁문제 세미나'를 열어 이 문제를 토론함



☐ 주요내용

- 중국의 쇼트클립 이용자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이미 4.1억 명을 넘어섬. 쇼트클립 콘텐츠의 방영시간 또한 15분에서, 3분으로 줄어들었으며, 최근에는 15초와 8초 등 짧은 쇼트클립이 큰 인기를 얻고 있음
 - 중국인민대학 리천(李琛)교수에 따르면 최근 중국인들의 선호도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짧은 쇼트클립'이 더 인기가 많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쇼트클립의 저작권 관련 문제 중 가장 큰 문제점은 타인의 쇼트클립을 무단으로 전송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임. 이와 관련하여 업계의 관행은 5분 이내의 짧은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를 공정이용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임
- 하지만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화동정법대학 총리셴(丛立先)교수에 따르면, 쇼트클립의 무단 전재 혹은 전송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영상의 길고 짧음, 즉 시간과 관계없다고 주장함
 - 그에 따르면 3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영상이라도 독창적으로 창작되었다면 여전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을 무단복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여전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쇼트클립의 저작권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점은 쇼트클립의 제작과 관련한 것임
 - 현재 중국에서는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쇼트클립은 대부분 영화 또는 다른 동영상의 일부를 직접 편집해서 제작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대다수 제작자들이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쇼트클립을 제작하고 있음. 이외에도 타인의 쇼트클립을 무단으로 편집하는 행위가 여전히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평가

- 최근 중국에서 다양한 문화콘텐츠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쇼트클립 산업의 부상이 눈에 띈다. 우리의 경우 쇼트클립 영상 관련 시장이 중국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이 당면한 관련 저작권 문제는 우리 역시 직면한 문제이며, 관련시장이 커갈수록 새로운 저작권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음. 한편, 중국 쇼트클립 시장의 폭발적 팽창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인 시장 참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국 내에서 쇼트클립에 대한 권리침해와 법적 대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 출처

- 인민망(人民网)
 - <http://ip.people.com.cn/n1/2018/0709/c179663-30135026.html>